



산업단지 내 신재생 발전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으로 수출기업 'RE100' 고민 해결

- '탄소중립형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 재생에너지를 입주기업에 저렴하게 공급하여 'RE100' 이행 및 수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탄소중립형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산업단지 내 신재생 발전 기반시설(인프라)을 구축하고 있다.

6월 29일(목) 신재생 발전 기반시설(인프라) 준공식을 가진 창원 산업단지에도 수소 연료전지(1.8MW), 태양광(2MW) 등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생산된 신재생에너지 전기를 산업단지 내 수출기업에 저렴하게 공급하여 RE100 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폭스바겐, 애플 등 국제적(글로벌) 기업이 협력사에 RE100을 요구하는 등 탄소중립 요구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창원 산업단지 내 구축된 신재생 발전 기반시설(인프라)은 수출기업의 RE100 이행 고민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폭스바겐 등 국제적(글로벌) 기업에 제품을 납품하는 창원 산업단지 중소·중견 수출기업 4개 사가 이번 사업을 통해 직접 전력구매계약(직접 PPA, Power Purchase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직접 전력구매계약이란 재생에너지 생산자와 소비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하는 제도로, RE100 이행 수단에 해당한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들의 RE100 이행을 통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창원을 비롯하여 구미, 여수 등 주요 산업단지* 내 신재생 발전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산업단지가 지속 가능한 성장거점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 반월시화, 구미, 인천남동, 여수, 광주첨단, 부산녹산, 청주, 군산, 대구성서

담당 부서	지역경제정책관 입지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영호 (044-203-4430)
		담당자	사무관	최준혁 (044-203-4407)

붙임 창원 신재생 발전 인프라 준공식 및 사업 개요

□ 행사개요

- (일시·장소) '23.6.29.(목) 10:00~11:15, 경남 창원 동전일반산업단지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화천리 911-4, 경남창원그린에너지센터
- (참석자) 산업부 박종원 지역경제정책관,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상훈 이사장, SK에코플랜트 박경일 대표이사 등 사업 수행기관*, 경한코리아 이준형 대표 등 재생에너지전기 수요기업**
- * SK에코플랜트(주관), SK D&D, 그리드위즈, 누리플렉스, 전기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등
- ** 경한코리아, 태림산업, 한국 NSK, 현대정밀
- (주요 내용) ①준공식 세레모니, ②시설 투어

□ 창원산단 신재생 발전 인프라(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사업 개요

- 신재생 인프라 및 통합 에너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입주기업 RE100 이행 지원 모델을 확립하여 산업단지의 에너지 자급자족 추진
- (인프라) 수소 연료전지 1.8MW, 태양광 2MW, ESS 3MWh, V2G* 74kW 구축
- * Vehicle to Grid(V2G) :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잔여 전력을 전력망에 공급
- (공급 관리) 연료전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전기의 공급 현황을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하는 운영 시스템 구축
- (RE100 이행 지원) 신재생 발전 인프라를 통해 생산된 전기를 저렴하게 입주기업에 공급하여 수출기업의 RE100 이행 지원
- * 중소중견 입주기업 4개사가 직접 PPA 계약 체결